

보도자료



보도 희망일	즉시/제한없음
문의	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
	담당자: 이요한 / 전화: 880-2984 / 이메일: yohan410@snu.ac.kr

배포일: 2022.09.01.(목)

서울대 드림투게더마스터 10기 입학

- 54개국 176명 졸업생 배출
- 17개 개발도상국 출신 차세대 스포츠 행정가 21명 신입생 입학

-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한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(단장: 강준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) 드림투게더마스터(Dream Together Master, DTM)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의 스포츠 인재를 발굴하고, 교육하고,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 세계 스포츠 발전을 선도할 국제스포츠 행정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대한민국의 스포츠 국제개발협력사업이다.
- DTM은 가을학기 17개국 21명의 10기 신입생을 맞이한다. 지난 8월 17일(수)부터 입국을 시작하여 9월 1일(목) 첫 수업을 시작한다. DTM 과정이 이뤄지는 17개월 간 스포츠행정과 관련된 수업을 듣고, 스포츠 현장을 경험하고, 한국어를 배우고, 한국문화를 경험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스포츠 행정가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지식을 체득한다. 또 졸업 논문 작성을 통해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와 해당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을 통해 졸업 후,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국의 스포츠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.

- DTM은 지금까지 아시아, 아프리카, 유럽, 오세아니아, 중남미 54개국 출신 17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. 졸업생 중 코소보 출신 졸업생 오스마니 다울리나(Osmani Daulina, 6기)는 자국 문화청소년체육부 체육국 차관에 임명되고, 피지 출신 졸업생 루시아니 비우코토(Lusiani Biukoto, 2기)의 졸업 논문은 오세아니아 올림픽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적용되는 등 본국으로 돌아간 졸업생들은 스포츠 분야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.
- 학생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 뿐 아니라 졸업 후 성과관리도 DTM 사업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. 사업단은 졸업 후 학생들이 한국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을 현업에 적용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, 자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‘2022 SNU DTM Contest’ 에세이공모전을 통해 확인하고,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 바 있다. 올해는 총 43건의 에세이가 접수되었고 심사 과정을 거쳐 8월 19일(금) 최종 우수작을 발표한 바 있다. 올해 최우수작은 2020년 졸업생인 말레이시아의 우마이마 후스니(Umaimah Husni, 6기)의 성과사례로 ‘골프 산업을 통한 청소년 고용 기회 촉진 (Urban Youth Outreach- I’m a Caddy)’ 이다.
-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 강준호 단장은 “올해로 10기 신입생을 맞이하며 2013년 심었던 씨앗이 새싹이 되고, 나무로 성장한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. 나무가 장성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업단 뿐 아니라 관계부처인 문체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” 고 말했다.



서울대 드림투게더마스터 10기 오리엔테이션 사진